

# “백제 수도 중심 기능, 사찰이 담당”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1월 28일 사비도성 내 사찰 재조명

백제의 마지막 수도인 사비(현재 부여)는 백제 부흥을 위해 준비된 계획도시였다. 이런 계획도시 기반에 사찰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학술 연구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배병선)는 한국고대학회와 함께 11월 28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비도성 내 사찰은 사비나성 내부에 15개소, 사비나성 외에 10개소 등 총 31개소로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들 사찰 중 중요한 역할을 한 사찰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졌다. **노덕현 기자**

백제 최초 비구니 사찰, ‘동남리사’ 이병호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은 일본과 신라와 후대까지 영향을 준 비구·비구니 사찰의 대형형 구조를 밝혀냈다. 이 연구관은 동남리사지의 기와 조각과 탑 양식을 근거로 동남리사지가 군수리사지와 대칭을 이루는 최초의 비구니 사찰임을 밝혀냈다. 이 연구관은 “출토 기와를 기준으로 567년을 상한으로 6세기 4/4분기를 하한으로 한다. 동남리사지는 군수리사지와 같이 567년 능산리사지 조성 전후부터 577년 왕흥사지 조성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 연구관은 이어 “동남리사지에서는 목탑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이는 비구니 사찰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관은 “일본과 신라 초기 사찰에서 보이는 비구 사찰과 비구니 사찰의 구조에서 비구니 사찰에는 흔히 불탑이 조성되지 않는다. 이를 미루어 대형인 동남리사는 비구니 사찰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관은 “지금까지 백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일본과 신라에서 비구 사찰과 비구니 사찰의 대형 건립 형식이 드러나지 않던 정작 백제에서는 발견된 것은 동남리사지가 최초”라고 평했다.

‘군수리사’, 사비도성 내 최초 사찰 탁경백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은 사비도성 내 최초 사찰이 ‘군수리사’라고 밝혔다. 탁 연구관은 “538년부터 663년까지 130년간 백제의 수도인 사비에는 전 시기와는 달리 많은 사찰이 경영됐다”며 “이 많은 사찰 중 군수리사가 가장 빨리 축조한 사찰”이라고 말했다.

‘정림사’, 도심 중심시설 연결고리 정자영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원은 사비도성 내 정림사지가 사비도성 중심의 회랑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원은 “백제시대 정림사는 6세기 후반 현재 부여관북리백제유적 일대가 대단위로 개발되며 공방단지였던 곳이 가람

으로 변한 곳”이라며 “사비도성 내 강당 좌우에 회랑과 연결해 정림사가 조성됐고 이후의 백제 사비시기 가람배치의 전형으로서 자리 매김 됐다”고 밝혔다. 정 연구원은 또 “정림사 목탑 조성, 석탑 축기부 축도 부분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고 연구과제를 제시했다.

백제 삼원 가람 배치가 시작된 ‘능사’ 김중만 국립공주박물관 관장은 사비도성의 동쪽 나성에 위치한 ‘능사’를 조명했다. 김 관장은 “능사에서 발견된 유구와 유물을 검토해본 결과 사비시기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요소를 찾을 수 있다. 금동제 괴리, 토도류 중 삼각반입형 연화문외당과 복합문이 시문된 토기류 등 새로운 요소는 백제 삼원식 가람배치가 능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측하게 한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능사는 회랑이 나성과 능산리고분군까지 연결됐다. 북단에는 승방보다는 의례와 관련된 시설이 있었다. 또 3실 구조의 통로부가 백제 유적에서 발견된 것으로는 유일한다”고 말했다.

탁 연구관은 “도성의 도시계획과의 연관성, 유물의 제작연대, 영초적 검토, 불탑 검토를 통해 군수리사지가 사비도성 사찰의 시작점에 있는 사찰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원은 “왕흥사가 사비도성과 금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왕실사찰이라면 사비도성 정비체계에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며 “동편에 확인된 가마에서 제작된 기와 생산품들을 보면 왕흥사의 운영체제가 독립적으로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흥천사 42수 관음보살상, 현존 3점 국보 가치 충분”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 한국미술사연구소 학술세미나에서 재조명

서울 흥천사가 소장하고 있는 42수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이 당시 도상특징과 신앙 경향을 담고 있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할 만한 가치가 높다는 학술적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12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서울 흥천사 42수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의 재조명’을 주제로 제33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흥천사 42수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은 조선 초기인 1450년대 조성된 것으로 흥천사 불사과정에서 알려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흥천사 사십이수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의 편년과 역사적 의의’ 주제 발표를 맡은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42수 관음보살상은 신라 분황사 벽화로 그려진 것이 처음 등장한 예로, 이후 많은 상이 조성됐지만 현존하는 예는 극히 희귀하다”고 42수 관음보살상의 의미를 평가했다. 문 명예교수에 따르면 현재 42수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32수 상 및 안국동의 개인소장 상, 기맥박물관 소장 상 등 3점만이 남아있다. 문 명예교수는 “이번 흥천사 불상만이

사찰에서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연원 등을 살펴보면 국가장안이 조성해 당시 왕실사원인 흥천사에 봉안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문 명예교수는 또 “이 불상은 1450년 전 후 티베트계 명양식 보살상과 가장 흡사해 당시 장신의 늘씬한 양식을 대표하기도 한다. 그 희귀성에 귀중할 뿐더러 조선 초기 신앙 경향도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흥천사 사십이수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의 사상과 신앙을 발제한 유구가 동국대 교수는 에서 조선 초 간행된 《오대진언》에 수록된 ‘42수인과 진언’에 주목했다.



유 교수는 “15세기 불교신앙은 진언 수행이 한 축이었다. 조선시대 이르러 42진언과 함께 42수 천수관음 조성이 보편화됐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어 “상원사 문수동자상 속 《오대진언》 속 42수인도는 조선 초 천수관음 신앙과 미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평가했다. 주수완 고려대 교수는 “흥천사 사십이수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의 조성기법”을, 손신영 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이 “흥천사의 역사와 건축의 유래”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노덕현 기자**

## “고려시대 경판만” vs “조선·일제시대도”

불교문화재, 11월 30일 ‘팔만대장경’ 세미나서 학계 논쟁

“고려인들이 호국정신으로 만든 팔만대장경의 순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당시 대장목록에 근거해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덧붙인 경판들은 별도로 지정하는 게 타당합니다.” “팔만대장경은 후대에도 생생한 신앙 대상이었습니다. 완결성을 위해 후대 경판도 당연히 대장경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팔만대장경의 전체 경판 수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정안)와 문화재청이 11월 30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국보 제32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그 가치와 의미’에서는 학자들의 입장 차이가 명확히 드러났다. <오른쪽 사진> 현재 공인된 팔만대장경 경판 수는 1915년 조선총독부 관리 오다 간지로의 조사 통계인 8만1258판으로 1962년 국보 지정이 이 수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지난 10여년간 문화재청과 해인사 등의 조사에서 후대 추가된 경판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조선시대 원판 대신 새로 깎아 넣은 보각판 82판, 1915년 오다 간지로가 만든 보각판 18판, 오다가 만든 보각판을 1937년 다시 복제한 18판 등 118판이 원래 경판에 추가로 보태졌다. 전체 총 수도 94장 많은 8만1352판이다. 기조발표를 한 박삼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은 “고려 때 대장경목록에 없었던

데도, 분류 편의상 일부러 대장경에 집어 넣은 대장경 주석서, 고려 승려 균여의 저술 등을 포함한 ‘보유판’ 15종 2739판을 제외해야 하며, 후대 보완해 넣은 중복 경판들도 목록에서 빼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 한역대장경으로서의 순수성을 지키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뒤이어 발표한 최영호 동아대 교수, 김성수 청주대 교수는 “후대 경판도 신앙물로 대장경이 꾸준히 활용됐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유물이므로 일제시대 경판까지 대장경 목록에 넣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최 교수는 “일제시대 보각판의 경우 총독부가 일본 황실의 안녕과 만주국 황제 푸이에 대한 선물 등의 외교 목적으로 만든 것이므로 별도 지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절충안을 냈다. 토론에서는 해인사대장경연구위원장 겸임 스님이 “모든 경판을 대장경으로 알고 수백년 예배해온 불자들의 오랜 신앙 관행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한국불교선리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재단법인 선학원 부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 선학원 이사장)이 11월 30일 개원 10주년을 맞아 서울 정각사에서 제9회 학술상 수상식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법진 스님은 “선리연구원이라 이름한 것도 한국불교선리연구원으로 재단 허가를 받은 것에 연원한다. 당시 설립조사들의 뜻을 계승하고 한국불교학 발전에 기여하자는 뜻에서 지어졌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양현문화재단에서 연구원 설립 처음부터 지금까지 학술상 및 우수상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선리연구원 고문을 맡아주신 인환 스님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주시며 좌장을 맡아주셨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문 인환 스님은 축사를 통해 “꾸준히 학술상을 후원해주신 양현재단, 뜻있는 분원장들이 취지를 이해하고 신심을 내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9회 학술상 수상 경과보고 후

학술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학술상(양현상)은 ‘삼론교학에 나타난 방편의 의미’의 조윤경 박사(서강대)가 수상했다. 조 박사에겐 5백만 원의 학술지원금이 함께 주어졌다. 우수상(보각상)은 ‘스리랑카 불교 영웅 뉘타가마니 왕의 무용담에 대한 문헌학적 접근-테라와다 불교에서 성전은 용인되는가?’의 김한상 박사(동국대)가, 또 우수상(보성상)엔 ‘반야경 범자 42문의 반야공성 고찰’의 강대현 박사(위덕대)가 수상했다.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 3백만 원의 학술지원금이 전달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신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교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이다.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이다.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의 : ☎ 02)393-8027

**개인지도 및 단체명상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처명)**

# 양 지 국 악 사

##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